



## 대인예술시장 ‘문화 더하기’

**소셜펀딩 플랫폼 ‘マイ미’과 3가지 프로젝트 진행**

**등불 333개 리폼·엽서 디자인·천원식당 다큐 제작**

광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중 하나인 대인예술시장이 소셜펀딩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최근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소셜펀딩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예산 마련 외에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대인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이하 대인시장 사업단)은 지역 대표 소셜펀딩 플랫폼인 ‘マイミ’(MyMeme)과 손잡고 ‘대인시장 333개 등불 변신’·‘천원밥집 다큐영상제작’·‘디자인 대인 그림엽서 공모전’ 등 3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대인시장 333개 등불 변신 프로젝트’는 대인시장 사업단과 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기금프로그램운영사업단 무들마루가 함께 추진한다. 지난 2011

독거노인, 가난한 학생 등에게 지난 2010년부터 단돈 1000원으로 따뜻한 밥 한끼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올 초 할머니가 병마로 인해 영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고, 현재는 지역 기업과 단체들이 나서 식당 운영을 돋고 있다. 이 프로젝트 모금(목표액 300만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모금이 끝나면 광주 독립영화감독 그룹 사회적기업인 ‘필름에이지’가 영상제작을 시작한다.

‘디자인 대인(design in Daein) 그림엽서 공모전’도 진행한다. 이 공모전은 광주 시민들이 바라본 대인시장의 모습을 엽서에 담는 프로젝트다. 공모를 거쳐 접수된 시민들의 엽서 작품은 대인시장 홍보물, 아트 상품, 벽화로 재탄생하게 된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로, 펀딩은 진행하지 않는다.

대인시장 내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백반을 1000원에 팔아온 김선자(71) 할머니의 이야기도 소셜펀딩으로 예산을 모아 다큐멘터리로 제작된다. ‘혜드는 식당’ 김선자 할머니는 시장에서 하루 종일 물건을 팔아야 하는 노점상인들을 비롯해 일용직노동자,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주(走)’ 다섯 번째 이야기

**내일 오후 7시~새벽 2시 ‘대인예술 야시장’**

대인예술야(夜)시장이 11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시장 내 본전삼거리 일대에서 ‘주(走)’를 주제로 올해 다섯 번째 행사를 진행한다. 야외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행사로, 11, 12월에는 실내에서 열리게 된다.

이번 행사는 대인시장에서 활동중

인 힙합그룹 라이져 크루의 DJ ‘Dillo’의 진행으로 루트머지의 퓨전국악, 우물 안 개구리의 포크공연, 에시드 브레이커즈의 비보이 춤, 라이저 크루의 힙합 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대인시장 상인 20여팀으로 구성된 맛 기행열차는 머릿고기와 각종 부침

개 등을 만들어 미감을 유혹할 예정이다. 대인시장 젊은 작가들이 직접 볶고 빵아 내리는 드립커피도 기대된다.

이날 야시장에는 대인시장 작가 20팀, 시민예술가 100여팀, 상인 20팀 등 총 140여 팀이 참가해 시민들을 기다린다. 문의 062-670-7452(광주문화재단), 062-471-1515(무들마루사업단).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커피 향 짙은 클래식



서희태

이루마

신지아

김동규

‘동서커피클래식’ 1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피아니스트 이루마·바리톤 김동규 씨 등**

은은한 커피향과 클래식 음악은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커피 제품으로 유명한 동서식품은 창립 40주년이었던 지난 2008년부터 ‘함께하는 삶의 향기’를 주제로 삶, 커피, 클래식의 향기가 어우러진 음악회를 열어왔다.

‘동서커피클래식’ 행사가 광주에서 처음 열린다. 14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내 셔널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함께 무대에 오르는 이번 음악회는 무엇보다 화려한 협연자 면면이 눈에 띈다. 연주곡 역시, 난해한 음악보다는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레퍼토리를 선정, 관객들이 클래식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배려했다.

또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음악감독을 역임하고 수많은 CEO모임에서 강연을 하며 ‘클래식 전도사’ 역할을 하는 서희태(밀레니엄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씨가 지휘와 해설을 직접 맡아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연주회는 로시니의 오페라 ‘도둑가치’ 서곡으로 문을 연다. 이

어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씨가 사라사테의 ‘찌고이네르바이젠’과 베토벤의 ‘로망스 2번’을 협연한다.

전주 출신인 신씨는 지난 2008년 풀티보 콩쿠르에서 1위, 2012년 퀸엘리자베스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했다. 또 세계적 지휘자 니콜 하딩과 협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무대도 만날 수 있다. 대표곡인 ‘Kiss the rain’, 자신의 딸 이름을 제목으로 부친 ‘Loanna’, 2집 앨범 ‘First love’의 삽입곡으로 서정적인 느낌이 살아있는 ‘River flows in you’ 등을 연주한다.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으로 시작하는 2부에는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서활란씨가 출연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오페라 ‘마술파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오페라 ‘호프만의 베노래’ 중 ‘인형의 노래’,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팔방 미인’,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삽입곡도 들려준다.

15일에는 ‘백신 사랑의 향기’ 행사가 열린다. 광주애육원에 악기 전달식을 가지며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와 광주 내셔널필 단원들이 재능기부로 그룹별 레슨을 진행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홍겨운 48가락 설장고

이경화 대통령상 기념공연 1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국악인 이경화(53)씨는 올해 경계사를 맞았다. 남들은 한번도 받기 어려운 대통령상을 두번이나 수상한 것. 그것도 판소리(2013 대구국악제)와 무용(제18회 한발국악전국대회)이라는 각기 다른 장르로 수상한 것은 유례가 없다.

이씨는 전남 지역 최고의 상최였던 고(故) 이주완 선생의 막내딸이다. 아버지 곁에서 4살때 소고를 만지고, 6살 때부터 장고채를 가지고 놀았다. 10살 꼬마였던 1964년에는 아버지와 함께 ‘호남농악’으로 전국민속예술경연 대회 참여,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남도청 앞에서 카 퍼레이드를 했던 기억은 아직도 깊이 남아 있다.

이경화 대통령상 수상 기념공연이 오는 13일 오후 5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동국예술학회가 지난 1990년부터 진행해온 ‘한국의 명인 명무전’ 78회 무대로 꾸며진다.

공연일·오정숙·박동진·오경화 등 각 분야 명인들에게 소리와 살풀이, 승무, 한랑무 등을 사사한 그녀의 장기는 ‘설장고’다. 이번 대통령상 역시 48가락 설장고로 받았다. 지난 1990년 이경화국악예술단을 결성한 그녀는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공연은 이씨의 설장고 가락을 이어받은 풍물세상 굿 패 마루와 이경화국악예술단과 함께하는 ‘비나리와 모듬북’으로 시작된다. 또 이경화씨는 박춘墁씨와 창극 ‘나무꾼’을 선사하며 ‘설장고춤’, ‘부채춤’ 등도 선보인다. 문의 062-233-529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낙지의 명가 5.18 낙지**  
**제인점 문의**

체인점 문의 ☎ 061-375-2383  
HP. 010-6656-0002

상표등록 : 41-0241299호